

아시아

◆ 스리랑카, 경제회복 가능성 커질 듯

지난해 스리랑카의 경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30여 년만에 처음으로 경제성장률 -1.3%라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였으며⁸⁾, 재정수지도 GDP 대비 11%에 달하는 1,481억 스리랑카루피(17억 달러 상당)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정수지가 이렇게 과도한 적자를 기록한 것은 민영화 프로그램 실행의 지연으로 인해 계획된 만큼의 재정을 확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⁹⁾, 현 야당인 인민연합(People's Alliance: PA)의 집권 당시 이루어진 선심성 재정지출 및 장기간의 내전에 따른 과도한 군비지출 등으로 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스리랑카는 이렇듯 지난 1년 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작년 12월의 정권교체로 정치불안이 상당히 완화되었으며 경제회복의 기대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는 집권 통일국민전선(United National Front: UNF)이 현재 타밀 반군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경제개혁 프로

그램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반군과의 평화협상 가능성 증대

타밀 반군은 1983년부터 시작된 분리독립운동¹⁰⁾ 과정에서 65,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극렬한 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작년 12월 총선에서 반군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는 UNF가 집권하면서 18년간 지속된 내전의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타밀 반군은 우호적 성향의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작년 12월 24일부터 한 달간의 휴전을 선언하였으며, 금년 1월중 이를 다시 한 달간 연장하였다. 그 후 2월 22일에는 노르웨이 정부의 적극적 중재로 양측은 휴전협정에 조인하고 5월에 평화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동 휴전협정에 따라 기존 반군 지역에 대한 생필품 반입 금지 조치가 한시적으로 해제되어 반군 지역과의 자유로운 교역이 허용되고 있다.

8) 최근 수년간 지속된 심각한 가뭄으로 차를 포함한 주요 농산물 수확이 감소한데다, 세계경제 침체로 주력 수출산업인 섬유산업이 부진했고 국내의 테러우려에 따라 관광산업도 위축됨으로써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게 된 것으로 분석됨.

9) 정부는 당초 2001년 중 민영화 프로그램을 통해 250억 스리랑카루피의 재정수입 확충을 목표로 하였으나, 당초 기대와 달리 86억 스리랑카루피의 수입을 얻는 데 그침.

10) 스리랑카 총인구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싱할리족에 비해 소수민족인 타밀족은 모든 분야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분리독립투쟁에 나서고 있음.

그러나 5월로 예정되었던 평화협상은 분리독립 문제에 대한 타밀 반군과 정부와의 시각차로 인해 한 달 뒤로 연기되어, 6월 중 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타밀 반군은 자신들을 불법화한 정부의 조치가 해제되지 않는 한 회담에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회담의 최종적 성사 여부는 아직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가 분리독립 승인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스리랑카 북부 지역에서 타밀족의 폭넓은 자율권을 인정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회담 개최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적극적인 경제개혁 프로그램 추진

스리랑카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1997년 중 4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을 정점으로 불안정한 정치상황으로 인한 민영화 지연, 오랜 내전에 따른 투자 위험성 증대 등에 영향받아 계속 감소해왔다. 그 결과 2001년 중 FDI 유입규모는 전년도의 약 50% 수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2001년 말 현재 누적 FDI 규모도 26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스리랑카 정부는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 FDI 유치방안을 포함한 적극적인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금년 4월 19일부터 은행, 보험, 증권 등 전문 서비스 분야와 각종 사회간접자본 관련 분야에 대해 외국인의 100% 단독출자를 통한 신규사업 진출이 허용되었다. 아

울러 기존 외국인이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부과하던 100%의 세금도 최근 폐지되었다. 이외에 내수 시장 활성화와 기업들의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35%인 법인세율을 2003~04년에 순차적으로 20%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해 개인소득세율도 연차적으로 인하되고, 소득세의 면제 범위도 현행 144천 스리랑카루피에서 240천 스리랑카루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스리랑카 정부는 부진했던 공기업 민영화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 민영화를 주도하고 있는 공기업개혁위원회(Public Enterprises Reform Commission)는 국내 보험시장의 35%를 점유하고 있는 국영 스리랑카 보험회사(Sri Lanka Insurance Corp)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2년 중 동 회사의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정부 목표인 210억 스리랑카루피의 민영화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민영화 프로젝트의 최종 낙찰자는 금년 12월까지 선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스리랑카 정부는 다른 소규모 국영 보험회사와 많은 논란을 일으킨 통신산업의 민영화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셸 가스회사(Shell Gas Lanka Ltd.)의 정부 보유지분 49%도 주식시장 상장 방식으로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는 당초 국내 2개 기업을 대상으로 동 기업을 직접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이들의 제사가격이 정부의 예정가격¹¹⁾에

11) 스리랑카 정부는 동사의 매각을 통해 3,000만 달러의 수입을 기대하고 있음.

미치지 못하여, 기업공개를 통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공모를 통한 민영화가 이루어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게 스리랑카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의지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자금지원 재개

스리랑카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를 포함한 각종 경제개혁안이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음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 및 부진한 경제개혁 등을 이유로 2001년 중단된 IMF 대기성차관 지원이 금년 4월 중 재개되었다.¹²⁾ IMF의 지원 재개로 국제사회로부터 빈곤추방 및 경제성장을 위한 자금지원을 끌어내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UN은 최근 15개 농업 부문을 지원하는 총 1,34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 지원분야 결정을 위해 금년 초 전문가들을 타밀 반군 주둔지에 파견하여 농업, 축산업 및 수산업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타당성 검토를 마친 상태이다. 향후 반군과의 평화협상이 타결될 경우, 과거 스리랑카 식량 공급의 중추 역할을 했던 북부 지역의 농업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공급의 수력발전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큰 스리랑카 정부는 최근 50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극심한 전력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¹³⁾ 이에 스리랑카 정부는 전력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은행으로

부터 7,400만 달러의 자금지원을 받아 태양열 및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 방안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약 1,000여 개 마을에 전기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스리랑카 정부는 수력발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화력발전소의 추가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00만 달러 규모의 수산업 관련 지원 프로젝트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에는 연안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업 및 수산업과 관련된 전반적 훈련 및 연구개발사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적극적 경제개혁 프로그램 추진 및 반군과의 평화협정 타결 가능성 고조 등으로 인해 최근 스리랑카에 대한 일련의 국제 자금지원이 재개되는 등 호전된 여건을 바탕으로 경제위기 극복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불안요인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점은 UNF의 라닐 총리와 PA의 쿠마라통가 대통령 사이의 정치적 반목이다. 새 정부 출범 후 5개월간 총리와 대통령간에 많은 갈등이 빚어졌으며, 이러한 갈등이 심화될 경우 현 정부가 추진중인 개혁 프로그램의 지속적 수행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蔡 祥 珍】

12) IMF는 작년 4월 지원이 결정된 2억 5,300만 달러 규모의 대기성차관 중 6,000만 달러를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결정하였음.
 13) 작년 6월부터 시작된 제한송전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하루에 2.5~5시간 정도 단전조치가 계속되고 있음. 당초 금년 5월 15일부터 제한송전이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제한송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